

小兒夜啼症, 틱(Tic) 病의 良方

裴元植*

幼兒가 아무런 까닭없이 밤이면 或은 밤낮을 가리지않고 食口들의 神經을 곤두서게 할 程度로 우는 것을 夜啼症이라 하며 西醫에서 神經症으로 取扱하고 있다.

※ 틱(Tic) 病

頭部 頸部 肩(어깨) 等の 一群의 筋이 不隨意的으로 急激히 律動的으로 攣縮을 反覆하는 것으로서 幼稚園 園兒 國民學校 1~2年生들에게 種種 보이는데 이 症狀은 코(鼻)로 쿵쿵하는 소리를 내며 입을 실룩거리기도 하며 끊임없이 눈을 깜박거리기도 하고 머리와 코 귀 等を 잡아당기기도 하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는 등 一部筋肉을 習慣的으로 움직이는 것이 特徵으로서 自己 힘으로 이를 制止하지 못하며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恒常 외톨이로 혼자 놀고 있으면서도 외로운 感을 느끼지 못하는 表情이다.

※ 治療

弊院에서는 위에서 말한 두 病證에는 다음 處方藥을 基本治療方으로 定하고 있다.

處方; 白茯苓 防風 人蔘 各 1.0 (錢), 黃芩 柴胡 神曲 山查肉 各 1.5, 甘草 1.0, 燈心 蟬退 朱砂(水飛) 各 0.5, 以上 水煎服한다. 藥 달이는 方法은 朱砂未을 달인 약물에 타서 먹이려고 하지 말고 같이 넣어서 달여야 한다.

清水를 900 cc 넣은 후 150 cc (커피잔 한 잔)가 되도록 달여서 2歲 未滿은 어른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씩 一日 3回 服用한다. 1貼을 2日間 分服하면 가장 좋다. 보편적으로 2貼이면 完治되는 例가 많다.

※ 틱(Tic) 病에 걸려 治療한 統計를 보면 年齡이 5歲부터 9歲 未滿이 가장 많았으며 위의 藥 한첩 달인 물을 午前 午後 食後 1時間 30分만에 두 번에 나누어 服用한다. 治驗한 바를 綜合하여 보면 10貼이면 보편적으로 效果反應이 나타나며 病症의 輕重差와 體質關係上 完治에는 5,60貼까지 使用한 事例도 있었다.

* 서울 裴元植韓醫院